〈강의안〉

지상의 법과 소녀의 윤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B.C.441경), 『소포클레스 비극전집』, 도서출판 숲, 2008.

송승환(시인/문학평론가/서울여대 초빙교수)
poetika@naver.com

▶**소포클레스(Sophokles):** 그리스 아테네 부근의 콜로노스에서 태어났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빼어난 용모에 다양한 재주와 능력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스가 살라미스 해전(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협에서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소년 합창단을 이끈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기원전 468년에 소포클레스는 비극 경연 대회에서 자신의 스승인 아이스킬로스(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가운데 한 사람)를 제치고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120여 편의 작품을 쓰는 동안에도 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다고 한다. 그는 전통적 비극 형식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기존의 코로스와 무대 장치를 조금씩 고치거나 배우를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려 극적 갈등의 범위를 넓힌 것 등이 그것이다.

소포클레스는 극작가로는 물론이고 정치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기원전 443년부터 442년까지는 델로스 동맹의 재무관을 역임했으며, 441년에는 사모스 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10인의 장군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기원전 420년(또는 419년)에는 에피다우루스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아테네로 맞이하는 일을 주관했으며, 시칠리아에서 아테네 원정군이 전멸한 이후에는 최고위원 1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주요 등장인물

- 안티고네(Antigone): 오이디푸스의 딸. 이오카스테의 딸
- 이스메네(Ismene):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의 여동생. 이오카스테의 딸
- 크레온(Kreon): 테바이(Thbai)의 왕. 그리스어로 '지배자'라는 뜻. 오이디푸스의 처남. 이오카스테의 오빠.
- 에우뤼디케(Eurydike): 크레온의 아내
- 하이몬(Haimon): 크레온의 아들
- 테이레시아스(Teiresias): 눈먼 예언자
- 사자(使者)
- 사자(使者) 2
- 코로스(Choros): 테바이의 원로들로 구성

*폴뤼네이케스: 오이디푸스의 아들. 안티고네의 오빠. 테바이에서 추방된 뒤 아르고스로 가서 그곳의 아드라스토스 왕의 힘을 빌어 테바이의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그의 딸 아르게이아(Argeia)와 결혼하는데(『콜로누스의오이디푸스』 378행 참조),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티고네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
*에테오클레스: 오이디푸스의 아들. 안티고네의 오빠.

▶주요 대사

44.
이스메네: 도시에 금령(禁令)이 내려졌는데도 그분을 묻어주려는 거예요?
안티고네: 그분은 내 오라버니고, 네가 원치 않더라도 네 오라버니야.
내가 그분을 배신했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게 할 거야.
이스메네: 크레온 님이 금하였는데 고집을 부리겠다고요?
안티고네: 나를 내 가족에게서 떼오놓을 권리가 그분에게는 없어.

58.
이스메네: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에요.
우린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라도 복종해야 해요.

198.
크레온: 하지만 그와 형제간인 폴뤼네이케스로 말하자면
망명지에서 돌아와 조국 땅과 선조들의 신들을
화염으로 송두리째 불살라 없애고,
친족의 피를 마시고, 나머지는 노예로
끌고 가려 했으니 그와 관련하여 나는

도시에 알리게 했소이다. 아무도 그를 위해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하지 말고, 그의 시신을
묻히지 않은 채 버려두어 새 떼와 개 떼의
밥이 되고 흉측한 몰골이 되게 하라고 말이오.
이것이 내 뜻이오.

447.
크레온: 그런데도 너는 감히 포고령을 어겼단 말이더냐?
안티고네: 내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不文律)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522.
크레온: 적(敵)은 죽어도 친구가 안되는 법이지.
안티고네: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1)]

672.
크레온: 불복종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불복종은
도시를 파괴하고, 집들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법질서를 옹호해야 하고,
결코 한낱 계집에게 져서는 안된다. 꼭 져야 한다면
우리가 한낱 계집에게 졌다는 말을 듣느니
남자에게 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705
하이몬: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는 한 가지 생각만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누군가 자기만 현명하고, 언변과 조언에서 자기만 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막상 검증해보면 속이 비어 있음이 드러나지요.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1) 내 오라비들은 서로 미워했지만, 나는 에테오클레스 편을 들어 폴뤼네이케스를 미워하는 대신 폴뤼네이케스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736.
크레온: 이 나라를 내가 아닌 남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하이몬: 한 사람만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지요.
크레온: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곧 국가의 임자가아니란 말이냐?
하이몬: 사막에서라면 멋있게 독재하실 수 있겠지요.

915.
안티고네: 사랑하는 오라버니! 그래서 지금
크레온 님이 나를 이렇게 완력으로 붙잡아 끌고 가고 있어요.
신부의 침대도 없이, 축혼가도 없이,
결혼의 행복도 아이를 기르는 재미도 모른 채
이렇게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이 불운한 여인은
살아서 죽은 이들의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대체 신들의 어떤 법을 내가 어겼다는 거죠?

1080.
테이레시아스: 그리고 개 떼나 짐승 떼나, 또는 불경한 악취를
도시와 그 전사들의 활로 나르는 날개 달린 새가
갈기갈기 찢긴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모든 도시들이 증오심을 푸고 일어서게 될 것이오.

1099.
크레온: 어쩌면 좋겠고? 내가 따를 테니, 말해보시오.
코러스장: 가셔서 소녀를 석실(石室)에서 놓아주시고,
누워 있는 자에게 무덤을 만들어주시오!

1348.
코로스: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모독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어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네.

▶작품 소개[2]: 『안티고네』는 기원전 441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가 골육상잔 끝에 일대일 결투에서 서로 죽이고 죽자, 새로 **테바이의 왕이 된 크레온은 다른 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국을 공격한 폴뤼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그의 명령을 어기고 오라비를 위해 장례를

2) 소포클레스, 「안티고네」(B.C.441경), 『소포클레스 비극전집』,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08, p.92.

치러주다가 잡혀 크레온 앞에 끌려온다. 안티고네는 죽은 혈족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천륜, 이른바 '신들의 불문율'이라고 주장하지만 크레온은 가차 없이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석굴을 가둔다. 크레온의 아들로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이 와서 아버지를 말려보지만 크레온의 생각은 확고하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와서 천륜을 어기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자 불안한 마음으로 석굴로 간 크레온은 아들 하이몬이 목매달아 죽은 안티고네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이몬은 크레온을 칼로 찌르려다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궁전으로 돌아온 크레온은 설상가상으로 아내 에우뤼디케가 절망하여 자살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된다.